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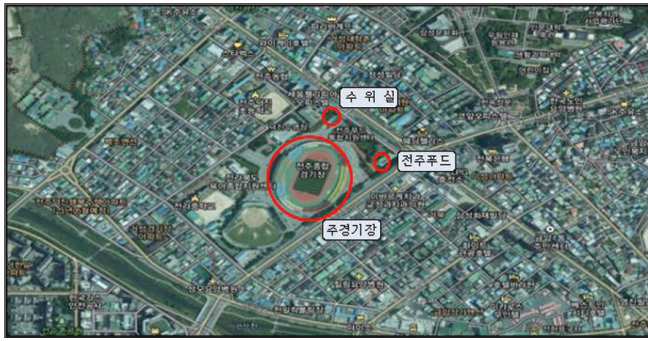
시, 종합경기장 철거 위한 실시설계비 2억원 확보해 철거 위한 행정절차 돌입

전주시가 야구장에 이어 기존 노후화된 종합경기장 시설을 철거하고 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종합경기장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철거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2억 원을 확보, 현재 철거를 위한 기초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철거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경기장 내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퇴거가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확보해 본격 철거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내년 중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건축물 멸실신고 등 모든 행정절차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의 초석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위치도

이와 관련 시는 당초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의숲 조성과 기존 경기장 시설을 재생하는 방향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에 발맞춰 부가가치가 높은 MICE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을 변경했다.

특히, 시는 지난 5월 야구장 철거를 완료하고, 이어 지난달에는 철거 예정인 전주종합경기장의 대체 시설인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갖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타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 받은 이후 지지부진 했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이 야구장 철거와 대체시설 건립 착수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종합경기장 철거와 함께 종합경기장에 대한 기록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주종합경기장이 지난 1963년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건립된 만큼, 이러한 시민들의 추억이 퇴색되지 않도록 경기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철거공사의 과정을 영상화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하기 위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전주시의 숙원이며,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MICE 복합단지 등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가 있는 만큼, 안전한 종합경기장 철거와 향후 이어질 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12일 알뜰맘 재봉틀 재능봉사단이 폐현수막을 이용해 제작한 텀블러가방 50개와 공유장바구니 30개를 덕진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폐현수막, 새활용품으로 재탄생

재능봉사자 손길로 텀블러 가방·공유장바구니 제작 기부

버려진 폐현수막이 전주지역 재능봉사자들의 손길로 텀블러 가방과 장바구니 등 새활용품으로 재탄생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12일 알뜰맘 재봉틀 재능봉사단이 폐현수막을 이용해 제작한 텀블러가방 50개와 공유장바구니 30개를 덕진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시민들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등을 억제하고, 생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공모지원사업인 '폐현수막의 행복한

쓰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재능봉사자들은 향후 폐현수막 공유장바구니 등을 제작해 전통시장 등에서 무료로 나누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최이천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할 때"라며 "자원봉사자들이 선한 가치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순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덕진공원에서 15~16일 '전주연꽃문화제' 열린다

연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린 연꽃으로 화사해진 전주덕진공원에서 문화공연이 가득한 연꽃축제가 열린다.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 성일원)이 주최하는 2023 전주연꽃문화제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주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주연꽃문화제 행사에서는 △연꽃가요제 △전통문화 체험부스 △문화공연 △전통음식체험 △초대 가수 공연(소리새·후니옹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덕진공원 연꽃은 지난 1974년 식재된 흥련으로, 진한 연분홍빛에 어른 머리만한 크기로 유명해 매년 관광객과 사진작가에게 인기가 높은 촬영명소이다. 최근 이곳의 연꽃이 연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려는 전국 사진작가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만개한 연꽃을 만날 수 있는 전주덕진공원은 관광객들의 여름 나들이 최적의 장소"라며 "많은 분이 여행 일정을 잡아 덕진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시 위기청소년 취업역량 강화 '맞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 협약 체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2일 전라북도청년도전지원사업단과 전주지역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 정인화 단장,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혜선 센터장)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12일 전라북도청년도전지원사업단(단장 정인화)과 전주지역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위기청소년들이 자

립할 수 있도록 청년도전 지원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년도전 지원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간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부터 34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심리 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생활 관리, 진

로 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월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참여자들이 역량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누릴 수 있다.

정인화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촉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얻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혜선 센터장은 "위기청소년 중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육 및 심리지원과 더불어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은 현재 총 125개 기관, 232명으로 구성된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법률 지원,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jisngdam.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기기자

전주시, 주한독일기업들과 네트워크 강화

한독상공회의소 주최 한독기업 PR/마케팅 담당자 행사 참가

전주시가 한국에 진출한 독일기업들과의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2일 한독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독기업 PR/마케팅 담당자 회의'에 참석해 전주를 소개하고 독일기업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한국에 지사를 둔 독일 주요기업 홍보마케팅 담당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가을에 열리는 전주세계문화주간 '할로 도이칠란드 독일문화주간'을 홍보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발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1주일 동안 전주시 일원에서 '할로 도이칠란드'를 주제로 2023 전주세계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다양한 기업군과 문화적 자산을 자랑하는 독일의 다

양한 면모를 선보이고, 독일에 전주를 알리기 위해 △한국과 독일의 주요 VIP 초청 △개막식 △독일문화체험행사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바이올리니스트 등 초청 독일 음악가 시리즈 '독일음악의 라이벌: 브람스와 바그너'와 '위대한 베토벤' △독일 철학 문학시리즈 △독일영화 페스티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반현아 전주시 국제협력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외교행사로 자리매김한 전주세계문화주간을 앞두고 올해 주한독일대사관, 문화원, 한독상공회의소와 더불어 다양한 주한독일기업과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지역문화지수 1위인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